

금당 벽화(아스카 시대 중요문화재)

7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와 중국 등의 문화적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이 벽화도 1949년의 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. 소실된 벽화는 1952년에 지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